

【논문】

## 스토아 혼합 논의

—스토아 혼합론은 스토아 일원론과 두 가지 물체적 근원론을  
양립가능하게 하는가?—

한 경 자

【주제분류】 서양고대철학, 스토아 자연학

【주요어】 병치, 융해, 완전 혼합, 혼합, 프네우마, 크뤼시포스, 근원

【요약문】 스토아 혼합론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물체가 어떻게 동시에 한 장소에 있을 수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집중해 있다. 크뤼시포스는 섞임을 병치, 융해, (완전) 혼합이라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이 중 (완전) 혼합의 방식이 두 물체가 동시에 한 장소에 있을 수 있는 방법임을 논한다.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알렉산드로스의 단편을 분석하여 스토아가 (완전) 혼합을 다른 두 섞임의 방식과 어떻게 차별화시키고 있으며, 스토아가 이 ‘완전 혼합론’을 통해 본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렉산드로스의 단편에 더하여 혼합에 대한 스토아의 생각의 일면을 보여주는 스토바이오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플루타르코스 등의 단편들은 ‘완전 혼합론’을 통해 스토아가 규명하고자 한 바가, 그것에 대한 여러 비판적 해석도 불구하고, 프네우마와 질료의 완전 혼합, 즉 물체인 프네우마가 물체인 질료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방식을 규명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완전 혼합론’은 물체인 프네우마가 세계 전체에 스며들어서 세계를 하나로 묶어 흩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지지하는 배경 논의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스토아 혼합론은 아리스토텔레스 혼합론의 용어와 사례를 의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차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것은 더 나아가 이 세계는 하나의 단일한 물체적 실체라는 스토아 일원론과 이 우주의 모든 사물은 두 개의 물체적 근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스토아적 유물론을 양립가능하게 해준다. 이 우주와 이 우주 안의 모든 사물은 두 개의 물체적 근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두 물

체적 근원이 함께 있는 방식이 ‘완전 혼합’이기 때문에 이 완전 혼합을 통해 이루어진 실체는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단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 I. 들어가면서

스토아 혼합론이 논쟁적으로 논의되는 맥락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어떻게 두 개 (이상)의 물체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있을 수 있는가?’와 관련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프네우마(pneuma)와 질료의 완전 혼합(krasis)’에 관련한 문제이다. 스토아 자연학의 구조상, 전자의 물음에 대해 스토아가 적절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후자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시킬 수 있다. 문제의 혼합물의 구성 요소가 되는 프네우마와 질료가 각각 물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토아 혼합 논의를 다루는 고대 주석가들의 공격은 주로 전자의 문제를 공격하는데 집중해 있고, 이 공격은 이 문제에 대한 스토아의 불합리한 해결이 스토아의 핵심 관점이 반영된 ‘물체인 프네우마가 물체인 질료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귀결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스토아의 혼합 논의에 대한 이들의 공격은 전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 공격은 결국 우주 전체 혹은 우주 안의 어떤 한 사물을 모두 프네우마와 질료의 결합 상태로 보는 스토아 존재론 전체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스토아 혼합론을 위와 같은 구도로 제시하는 비판적 주석가들의 단편들은 스토아 존재론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하는 어떤 전제를 함축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혼합물이라는 것이 그것을 구성하는 어떤 구성 요소들을 전제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구성요소들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는 스토아 혼합론은 이 세계가 하나의 단일한 물체적 실체라는 스토아 일원론과 일견 양립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상이 비판적 주석가들의 왜곡된 전달 탓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처음의 양립 불가능한 것 같은 인상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산재해 있는 여러 단편들의 분석과 비교에서 오히려 더욱 일관되게 드러나는 것은, 스토아

는 혼합 논의를 통해 ‘병치(parathesis)’와 ‘융해(synchysis)’라는 혼합(섞임; *mixis*)의 사태와 구별되는 ‘완전 혼합(*di' holōn krasis*)’의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sup>1)</sup> 스토아 일원론과 유물론을 양립시키려는 기획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스토아 혼합론은,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혹은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런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애초 일원론과 유물론의 양립이라는 기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 혼합론은 스토아의 이러한 기획의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그것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문제는 결국 다른 두 가지 종류의 혼합(섞임)인 ‘병치’, ‘융해’와 차별되는 ‘완전 혼합’이라는 방식의 혼합(섞임)의 성격 규명일 것이다.<sup>2)</sup> 앞의 두 섞임과 차별되는 ‘완전 혼합’의 성격 규정 내용에 따라 스토아 혼합론이 목표로 하는 기획의 내용도 함께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고의 논의는 스토아가 어떻게 ‘완전 혼합’을 다른 두 섞임의 방식과 차별화시키고 있으며, 이 ‘완전 혼합론’을 통해 그들이 본질적으로 의도한 것이 무엇인

- 
- 1)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여기에서 나는 각각의 희랍어에 대응되는 우리말 용어를 ‘섞임(*mixis*)’, ‘혼합(*krasis*)’, ‘병치(*parathesis*)’, ‘융해(*synchysis*)’, ‘같은 크기로 퍼짐(함께 뺄음, 상호침투, 완전히 스며들; *antiparektasis*)’, ‘연접(*harmē*)’, ‘함께 파괴됨(*symptharsis*)’로 쓰겠다. 그런데 사실 희랍어 ‘*mixis*’와 ‘*krasis*’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며, 다만 용례 상 ‘*krasis*’는 보통 액체의 섞임에 대해, ‘*mixis*’는 보통 고체류의 섞임에 쓰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알렉산드로스의 단편에서는 ‘*mixis*’를 보다 넓은 의미의 혼합으로, ‘*krasis*’를 보다 좁은 의미의 혼합(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혼합)으로 사용하였는데, ‘*mixis*’와 ‘*krasis*’가 본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성 소멸론』 1권 10장에서 이루어지는 ‘혼합 논의’에서는 크뤼시포스가 알렉산드로스의 단편에서 ‘*krasis*’에다 부여한 의미를 그대로 ‘*mixis*’란 용어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스토아 문맥에서는 일단 용어의 구별을 위하여 두 용어를 각각 ‘섞임(*mixis*)’과 ‘혼합(*krasis*)’이라는 우리말로 옮기도록 하겠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mixis*’는 넓은 의미의 혼합이라는 의미에서 때때로 ‘혼합’이라고 칭해질 수 있다.
  - 2) 본 논고는 스토아가 서술하는 ‘완전 혼합’의 성격 규명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완전 혼합’의 실제적 성공여부 자체가 본 논고의 주제적 문제는 아니므로 깊게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 과학에서조차 스토아가 말하는 ‘완전 혼합’의 방식이 과연 가능한가의 여부는 아직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Sorabji, R., *Matter, Space and Motion : Theories in Antiquity and Their Sequel* (Ithaca: Cornell UP, 1988)의 p.73 참조. 본 논고가 집중하는 문제는 ‘병치’, ‘융해’와 차별하여 ‘완전 혼합’의 위상을 세우는 스토아 혼합론의 구조에 대한 것이다.

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3)</sup>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 논고는 먼저 1. 스토아 혼합론이 논의되는 주요 전거인 알렉산드로스의 『혼합에 관하여』216. 14-217.2 (= SVF II.473)의 내용을 중심으로 스토아 혼합론의 개요를 정리하고, 크뤼시포스가 말하는 ‘섞임(mixis)’의 세 가지 종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2.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단편과 함께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와 스토바이오스의 단편 분석을 통해 혼합 논의에서 궁극적으로 크뤼시포스가 차별화시키고 있는 ‘완전 혼합(di' holōn krasis)’이라는 섞임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다. 3. 다음으로, 스토아 혼합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논의를 갖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성소멸론』1권 10장에서 혼합론을 소개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스토아가 어떤 방식으로 극적으로 반전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이 반전의 함의가 무엇인지를 고찰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스토아가 혼합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것인데, 이 논의는 스토아의 일원론과 유물론 양립의 해법 중 하나로 혼합론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것이다.

## II. 섞임(mixis)의 세 가지 종류 : 병치(parathesis), 융해(synchysis), (완전한) 혼합(krasis)

전달되는 문헌 중 스토아 혼합론의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전달해주는 것은 알렉산드로스(Alexander of Aphrodisias)의 『혼합에 관하여(De Mixtione)』216.14-218.10 (= SVF II.473)이다.<sup>4)</sup> 이 구절은 크게 1) 세 가지 종류의 섞

3) 혼합 논의는 그 자체로 긴 논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스토아 혼합 논의 역시 이러한 맥락 하에 있으며, 관련하여 선취 논의되어야 할 문제와 또 해결을 기다리는 파생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들은 각각 ‘무한 가분성 문제’와 ‘연속체론’인데, 이것들 각각이 매우 커다란 무게를 갖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들은 매우 깊이 연구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본 논고의 주제는 아니므로 여기서는 프네우마의 존재론적 위상 문제와 그 함의와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임을 개요하는 216.14~217.2의 내용과 2) 우리가 일반 개념에 의거하여 이 세 가지 종류의 섞임에 대한 분명한 세 가지 표상을 가지고 있다는 217.2-13의 내용, 그리고 3) 세 번째 종류의 섞임인 ‘혼합(krasis)’이 일어남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는 217.13-218.6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본 장에서는 1) 세 가지 종류의 섞임을 개요하는 216.14~217.2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단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sup>

(1) ‘혼합(krasis)’에 관한 크뤼시포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크뤼시포스가 상징하기를, 실체(ousia) 전체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통일되어 있는데; hēnōsthai), 이는 프네우마라는 어떤 것이 전 실체에 두루 퍼져 있기 때문으로(dičkontos), 이 프네우마에 의해 세계는 응집되고(유지되고; synechetai) 고정되며(symmenei) 자기 자신과 공감한다(상호작용을 한다; sympathes estin hautōi).

(2) 그런데 그는, 물체들이 이 실체 안에 섞여 있을 때, ① 한편으로 어떤 섞임(mixeis)은 ‘병치(parathesis)’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 경우,)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체들이 같은 장소에 함께 놓여 있고 서로 병렬해 있는데, 그가 말하는 바대로라면, 연결하여(kath’harmēn) 있다. 또한 그 실체들 각각은, 표면적으로 접촉하는(kata tēn perigraphēn) 그러한 병치에 의해, 그 자신의 고유한 실체와 성질을 보존하고 있다. 마치, 말하자면 콩들이나 밀들의 경우, 그것들이 서로 나란히 놓여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처럼 말이다.

② 다른 한편 또 다른 종류의 섞임은 실체들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실체의 성질들의 ‘완전한 융해(di’ holōn synchysis)’에 의해 그것들이 서로 함께

- 
- 4) 알렉산드로스(Alexander of Aphrodisias)의 *De Mixtione*는 Todd, R. B. (1976), *Alexander of Aphrodisias on Stoic Physics : A Study of the De Mixtione with Preliminary Essays, 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Leiden: Brill)에 의해 전문 번역되어 있다. 한편 Sorabji, R.(1988)는 Arnim, J.(1903)이 편집한 *Stoicorum Veterum Fragmenta*(이하 SVF)의 ‘Mixture’ 항목과 다른 항목들에 알렉산드로스의 *De Mixtione* 전문이 조각져 산재되어 실려 있어서 해당 내용의 전체 맥락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긴 하나, 다행스럽게 적어도 SVF II. 473 부분은 스토아 혼합론 전체의 윤곽을 정확히 전달해주고 있다.
- 5) Alexander, *On Mixture*, 216.14-217.2 (= SVF II.473, part = HP 48C, 1-20). 인용된 단편에 있는 번호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붙인 것이다.

파괴될 때(*symphtheirosin*) 일어난다. 마치 그가 말하길, 의학적 약물의 경우, 섞이는 것들이 함께 파괴되어(*kata symphtarsin*) 그것들로부터 다른 어떤 물체가 생겨날 때 일어나는 경우처럼 말이다.

③ 다른 한편 또 다른 종류의 섞임은, 그가 말하길, 어떤 실체들과 이 실체들의 성질들이, 완전히(*di' holōn*) 서로 같은 크기로 퍼져 있을 때(상호 침투해 있을 때; *antiparekteinomenōn*) 일어난다. 그와 같은 섞임 속에서도 처음의 실체들과 성질들을 보존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섞임을 그는 특별히 ‘혼합(*krasis*)’이라고 말한다. 왜냐면 둘 혹은 그 보다 많은 물체들이 서로 완전히(전체적으로) ‘같은 크기로 퍼져 있음(상호침투; *antiparektasis*)’을, 그리하여 그 물체들 각각은 그와 같은 섞임 속에서도 그 자신의 고유한 실체와 그 자신의 성질을 보존하고 있을, 그러한 ‘같은 크기로 퍼져 있음(상호침투)’을, 그는 섞임들(*mixeis*) 중에서 유일하게 ‘혼합(*krasis*)’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서로로부터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혼합되어 있는 것들의(*tōn kekramemenōn*) 특성인데, 이러한 점은 혼합되어 있는 것들이 섞임 속에서도 그 자신의 본성들을 보존할 때, 그럴 때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216.14~217.2의 서술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첫 번째는, 크뤼시포스가 ‘혼합(*krasis*)’에 관련하여 상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매우 짧고 간결하다. ‘혼합’에 대한 크뤼시포스의 상정에 따르면, 실체 전체는 하나로 되어(통일되어) 있는데, 실체의 이러한 통일성은 ‘프네우마(*pneuma*)’ 덕분이다. 프네우마가 실체 전체에 퍼져 있어서, 이 실체 전체에 퍼져 있는 프네우마에 의해 세계는 흩어지지 않으며 고정되어 유지되고 있고, 또한 세계가 자기 자신과 공감(상호작용)한다. 여기에서 혼합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구절은 ‘프네우마가 실체 전체에 퍼져 있다(*diēkontos*)’는 구절이다. ‘프네우마가 실체 전체에 두루 퍼져 있기 때문에’ 세계는 흩어지지 않고 고정되어 유지된다. 즉 세계가 흩어지지 않고 고정되어 유지되며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 공감(상호작용)할 수 있는 까닭은 세계의 응집성과 내부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힘을 지닌 프네우마 덕분이면서<sup>6)</sup> 동시에 그러한 힘을 지닌 ‘프네우마가 실체 전체에 두

6) 프네우마가 실체에 두루 퍼져서 세계를 흩어지지 않게 고정시키고 유지시키며 더 나

루 퍼져 있기 때문’이다. 프네우마의 어떤 힘이 세계의 응집성과 내부적 상호작용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프네우마가 실체 전체에 퍼져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혼합 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216.14~17의 구절은 알렉산드로스가 전하는 전체 혼합 논의에서 아주 짧고 매우 간결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확하게 크뤼시포스 혼합 논의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후 길게 이어지는 혼합 논의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프네우마가 실체 전체에 퍼져있는 사태’를 해명하기 위한 작업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구절은 적어도 알렉산드로스가 크뤼시포스의 혼합 논의가 프네우마가 실체에 퍼져있는 사태를 해명하기 위한 배경 논의, 혹은 근거 논의가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2) 두 번째는, 크뤼시포스가 구분한 세 가지 ‘섞임(mixis)’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다. 알렉산드로스가 묘사한 크뤼시포스의 구분에 따르면, 어떤 실체들이 섞여 있을 때, 섞여진 실체들 간에는 세 가지 사태의 섞임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때 섞여진 두 실체는 물체이다.

① 첫 번째 종류의 섞임은 ‘병치(parathesis)’이다. 병치라는 섞임의 특성은 이러한 방식의 섞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혼합물(혹은 결합물)의 구성 성분들이 ‘같은 장소에 함께 놓여 있으며, 나란히 병렬해 있다’는 점이다. 크

---

아가 세계가 자기 자신과 공감(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기술은 물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프네우마의 어떤 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단편에서는 그러한 프네우마(pneuma)의 힘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기술은 없지만, 다른 단편들에서 나타나는 프네우마의 힘, 혹은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프네우마의 힘 중 하나가 그것이 퍼져있는 실체를 하나로 묶는 것(synechein, hēnōsthai)이다. 이 ‘응집력(synektikē dynamis)’에 관해서는 프네우마의 기능과 토노스(tonos)의 성격을 다루는 다른 논고에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간단히 언급하자면, 프네우마의 응집력은 그것의 ‘긴장 운동(tonikē kinēsis)’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인데, 이때 이 ‘긴장 운동’은 ‘동시에 양방향을 향하는 운동(hē eis to enantion hama kinēsis)’, 즉 ‘자기 자신을 향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바깥을 향하는 운동(hē eis to esō hama kai eis to eksō kinesis)’이다. 이때 ‘자기 자신을 향하는 운동’은 실체성(ousia), 응집성(synechēs), 통일성(henōsis)을 낳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바깥을 향하는 운동’은 크기(megethos)와 성질(poiothēs)을 낳는다. (Alexander, *On mixture*, 224,14-17, 23-6 = SVF 2,442 = HP 47 I 와 Nemesius, 70,6-71,4 = HP 47J 참조)

뤼시포스식 표현에 의하면, ‘연접하여(kath’ harmēn)’ 있다. 그리고 이때의 구성 성분들은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것은 밀이나 콩처럼 곡식의 낱알갱이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섞임이다. 그런데 이때 알렉산드로스는 같은 장소에 두 구성 성분이 함께 놓여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이 사태는 두 개의 물체적 실체가 같은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그 구성 성분보다는 큰 장소에 그 장소의 크기보다는 작은 두 개의 물체적 실체가, 알렉산드로스가 계속해서 표현하듯이, 표면의 접촉을 통해(kata tēn perigraphēn) 연접하여(kath’ harmēn) 병렬적으로 놓여있는 사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섞임은, 나중에 다시 지적되었지만, 크뤼시포스적 의미로는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혼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나란히 놓여있는 것일 뿐이다.

② 두 번째 섞임의 종류는 ‘(완전) 융해(synchysis)’이다. 융해라는 방식의 섞임을 겪는 혼합물(결합물)의 애초의 두 구성성분은 융해 과정을 통해 각각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상실하고(symphtharsis) 새로운 제 삼의 실체로 재탄생한다. 새롭게 생겨난 실체는 원래 구성 성분들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의학적 약물의 경우 애초의 두 구성성분이 완전히 융해되어 제 삼의 것이 나타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섞임이다. 이것은 근대 과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화합물의 경우를 가리킨다.

③ 세 번째 종류의 섞임은 ‘(완전) 혼합(krasis)’이다. 이러한 종류의 섞임을 겪는 두 물체적 실체는 그 섞임 속에서 서로 완전히 스며들어 있다. ‘완전 혼합’은 그러한 방식의 혼합을 겪은 혼합물(결합물)의 두 구성 성분이 서로 완전히 스며들어 있다는 점에서, 단지 표면적으로만 연접하고 있는 ‘병치적 섞임’의 방식과도 다르며, 결합 후에도 여전히 애초의 구성성분들이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혼합물(결합물)에서 그 애초의 구성 성분들이 자신의 모든 성질을 상실한 ‘융해적 섞임’의 방식과도 다르다. 서로 완전히 상호 침투(di’ holōn antiparektasis)했으면 서도 그 구성 요소가 각각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뤼시포스는 이러한 종류의 섞임이 진정한 ‘혼합(krasis)’이라 할 만



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섞임과 그 차이를 명확히 하면서 구별지으려는 이 세 번째 종류의 섞임, 즉 ‘혼합(krasis)’은 정확히 어떤 사태를 지칭하는 것이며, 또 그 구별의 함의는 무엇인가?

### III. 크뤼시포스의 완전 혼합(krasis di’holōn)

(1) 알렉산드로스의 전언에서 보여지는 크뤼시포스가 분류한 세 번째 종류의 섞임인 ‘혼합(krasis)’은 단순히 두 가지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있는 사태가 아니다. 그것은 ‘완전하게(di’holōn)’, 다시 말해 ‘속속들이’, ‘전체를 관통하여’ 섞여 있는 사태이다. 그리고 그 ‘완전하게’의 사태를 크뤼시포스는 두 실체의 ‘완전히 나란히 같이 뻗어 있음(di’holōn antiparektasis)’, 다시 말해 ‘서로 완전히 스며들’, ‘완전한 상호 침투’로 묘사한다. 그래서 섞임의 사태 중에서도 완전하게, 즉 완전히 나란히 같이 뻗어 있는, 혹은 상호 침투하여(스며들어) 섞여있는 사태를 특별히 ‘혼합(krasis)’이라고 지칭한다. 따라서 크뤼시포스의 ‘혼합’이라는 지칭에는 두 물체의 단순한 섞임 사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두 물체의 ‘완전한 (상호 침투한, 스며들어 있는)’ 혼합(krasis di’holōn)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sup>7)</sup> 이것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가 전하는 글에도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크뤼시포스가 <자연학> 3권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혼합(krasis)이란 완전하게(di’holou) 일어나는 것으로, 표면 접촉이나 병치에 의해서(kata perigraphēn kai parathesin)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sup>8)</sup>

크뤼시포스가 말하는 혼합은 분명 단순한 섞임의 상태가 아닌 ‘완전 혼

7) 알렉산드로스의 이 구절에서는 일견 크뤼시포스가 ‘mixis’라는 용어를 좀 더 넓은 의미의 혼합(섞임)으로 ‘krasis’를 엄밀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혼합(섞임)으로 나누어 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서 주1)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mixis’와 ‘krasis’가 본래 그런 의미의 구분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성 소멸론』에서는 비슷한 논의가 ‘mixis’라는 용어 하에 진행되고 있다.

8) Diogenes Laertius, 7.151 (= SVF 2.479 = HP 48A)

합'이며, 이것은 표면적 접촉에 의한 '병치'적 섞임의 사태와 다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병치적 섞임은 일견 혼합의 사태처럼 보이거나 크뤼시포스적 관점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혹은 엄밀한 의미의 혼합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병치적 혼합물의 두 실체는 섞여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사실 그것은 섞여있다고 보다는 균일한 배열을 갖추어 나란히 놓여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섞임은 겉으로 보기엔 뭔가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사태 같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그러할 뿐 사실상 그것은 그냥 나란히 놓여 있는 사태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의 혼합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병치적 섞임이 섞임(일반적 의미의 혼합)의 한 종류냐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섞임이 진정한 의미에서, 혹은 엄밀한 의미에서 섞임 혹은 혼합이라고 할 만하냐 아니냐의 규명은, 알렉산드로스가 전하는 혼합론 논의의 흐름에서 보이는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크뤼시포스가 진정으로 목적인 바는 아닌 것 같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가 전하는 구절을 보면, 혼합론 논의를 통해 크뤼시포스가 목적하는 바는 병치가 진정한 의미의 혼합이 아님을, 혹은 진정한 혼합이라고 할 만한 것은 완전 혼합뿐이라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병치적 섞임의 사태를 정확하게 그려냄으로써 완전 혼합의 사태를 병치와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 혼합은 그 구성 성분들이 표면적으로 접촉하여 연결되어 있는(*kata perigraphēn kai parathesin*) 원자적, 혹은 기계적 병렬 사태인 병치와는 다르다. 크뤼시포스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 즉 완전 혼합과 병치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두 개의 물체적 실체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격의 방향을 변경시켜,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병치적 섞임이지, 완전 혼합의 경우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2) 다른 한편, 크뤼시포스가 말하는 '혼합'은 '융해'의 사태와도 구별된다. 융해적 섞임에서는 애초의 두 물체적 실체가 일단 융해라는 섞임의 사태를 겪은 후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성질을 상실한다. 그리고 그 실체들의 융해에 의해 새롭게 생겨난 제 삼의 실체는 애초 그 실체를 이루었

던 두 실체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닌 실체이다. 그런 의미에서 ‘융해’라는 섞임도 ‘완전하게(di’holōn)’이루어진다. 두 개의 실체의 섞임이 속속들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태어난 새로운 제 삼의 실체는 더 이상 그것을 구성한 애초의 실체들과는 상관 없는 존재이다.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을 탄생시킨 애초의 실체의 성질을 보존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와 달리 ‘완전 혼합’은, ‘완전한(di’holōn)’ 상호 침투이긴 하나, 그러니까 애초의 두 실체가 완전히(di’holōn) 섞여서, 즉 완전한 상호 침투의 사태를 거쳐서 역시 하나의 실체가 되지만(두 개의 실체가 완전한 섞임을 통해 하나의 실체가 된다는 점이 ‘융해’와 ‘혼합’이 공유하는 지점), 완전 혼합을 거쳐 생겨난 이 하나의 실체는, 융해와는 달리, 그것을 구성한 애초의 두 실체의 성질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즉 이 두 실체의 성질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지 않으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실체의 성질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음은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은, 스토아에 따르면, 스토바이오스가 전하는 단편에서 묘사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혼합들(krasis)의 경우, 함께 혼합된 것들의 성질들이 존속한다는 것은 이따금 이 혼합된 것들이 기술적으로 서로로부터 분리된다는 점에서 분명하다. 만일 누군가 기름적신 스펀지를 물과 혼합되었던 포도주에 담근다면, 물이 그 스펀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물을 포도주에서 분리할 것이다.<sup>9)</sup>

스토바이오스는 ‘혼합’, 그러니까 크뤼시포스적 의미의 혼합인 ‘완전 혼합’의 한 예로서 물과 포도주의 혼합 경우를 들고 있다. 물-포도주의 혼합 사태가 진정한 의미의 혼합 혹은 완전 혼합이라면,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섞여 있어야 하고(병치적 섞임이 아니라!) 이 혼합의 상태에서도 물과 포도주는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융해적 섞임과 달리!). 스토바이오스는 실험적으로 기름적신 스펀지를 물-포도주 혼합물에 담갔을 때, 물이 스펀지 속으로 빨려 들어옴을 확인함으로써 양자의 추출-분

9) Stobaeus, 1.155,5-11 (= SVF 2.471, part = HP 48D)

리를 통해 양자가 여전히 자신의 성질을 보존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이 추출-분리 실험을 통해 ‘완전 혼합’의 사태가 존재함이 증명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추출-분리가 가능한 물-포도주 혼합물이 크뤼시포스적 의미의 ‘완전 혼합’의 예로 적정한가의 여부가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여러 단편에서 크뤼시포스가 ‘완전 혼합’의 예로 이 ‘물-포도주 혼합물’의 예를, 좀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sup>10)</sup> 매우 빈번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용된 알렉산드로스의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와 플라타르코스의 단편 등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성 소멸론』 1권 10장의 혼합 논의에서 나타나는 구절과도 연관이 깊다.<sup>11)</sup> 사실적으로 물-포도주 혼합물의 예가 완전 혼합의 적절한 예가 되는지 여부의 문제와는 별도로 이 예를 스토아가 완전 혼합의 어떤 상징적 예처럼 사용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 문제는 조금 뒤, IV장과 V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3) 처음에 인용한 알렉산드로스의 『혼합에 관하여(De Mixtione)』 216.14-218.10의 나머지 구절을 살펴보아야 할 차례이다. II장에서 우리는 1) 216.14~217.2의 내용을 통해 크뤼시포스가 섞임의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바닷물-포도주 혼합물’ 예는 나머지 구절의 좀 후반부인 3) 217.13-218.6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 번째 종류의 섞임인 ‘혼합(krasis)’이 일어남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논의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그 사이의 2) 217.2-13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크뤼시포스는 섞임들 사이에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음을 일반 개념(공통 개념)에 따라(kata konōn ennoīōn) 확신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것들을 자연으로부터 진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10) 그 다른 형태는 ‘대량의 바닷물-한 방울의 포도주 혼합물’이다.

11) 관련 논의는 IV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있다고 말한다. 어쨌거나 우리는 ‘연접에 의해(kath'harmēn) 구성된 것들에 대한 어떤 표상(phantasia)'을 갖고 있으며, 또한 ‘융해되고 함께 파괴된 것들에 대한 또 다른 표상'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들 각각이 그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보존할 정도로, 혼합되었으면서 서로 완전히 같은 크기로 퍼져 있는(상호 침투해 있는, 스며들어 있는) 것들에 대한 또 다른 표상'도 가지고 있다. 만일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섞여있는 모든 것들이 연접에 의해(kath'harmēn)서만 서로 나란히 놓여 있다면, 우리는 표상들 간에 있는 그러한 차이점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혼합되어 있는 것들의 그러한 ‘같은 크기로 퍼짐(상호 침투)’은 혼합되어 있는 물체들이 서로를 관통하여 지나갈 때(chōrountōn di' allēlōn)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그리하여 그것들 안의 어떤 부분도, 이러한 혼합된 섞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눠 갖지(metechon) 않는 법이 없을 정도로 말이다. 만일 그러하지 않다면,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혼합(krasis)'이 아니라 ‘병치(parathesis)'일 것이다.<sup>12)</sup>

크뤼시포스는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섞임’의 방식이 있음을 우리의 ‘일반 개념’에 의존해서 확신시키고자 한다. 스토아들에 있어 이 일반 개념은 일종의 진리의 기준이다. 이 일반 개념에 따라 우리는 ‘섞임’에 대한 표상으로, 세 가지 종류의 표상을 갖고 있다. 즉 우리는 ① ‘연접(harmē)' (혹은 ‘병치(parathesis)’)라고도, ② ‘융해(synchysis)'와 ‘함께 파괴됨(symphtharsis)', 그리고 ③ ‘혼합(krasis)'과 ‘같은 크기로 퍼짐(상호침투; antiparektasis)'이라는 표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섞임’에 대한 표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표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특히 ‘병치’와 구별되는 ‘혼합(krasis)'의 표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크뤼시포스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혼합(krasis)에 의한 상호침투’는 혼합된 두 가지 이상의 물체들이 ‘서로를 관통하여(dia) 지나갈 때’ 일어나며, 이때 혼합된 물체의 각 부분들은 혼합된 물체 전체의 성격을 공유한다.<sup>13)</sup> 그리고 이런 상태의 혼합만이 진정한 의미의 ‘혼합(krasis)'이라 불릴 만하다. 반면 비록 어떤 혼합이 (실체와 성질을 보존하고 있더라도) 단순히 물체들의 ‘병치’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혼합’이라 불릴 수 없다. 그렇다면 그가 진정한 의미의 ‘혼합’이라고 부르는 사태는 어떤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12) Alexander, *On Mixture*, 217.2-13 (= SVF II.473, part = HP 48C, 20-31).

13) Anaxagoras의 homoimere, ‘전체는 부분 속에 모두 들어있다.’를 생각나게 한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러한 ‘완전 혼합’의 경우를, 이어지는 3) 217.13-218.6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완전 혼합’의 예로 앞서 언급한 ‘한 잔의 포도주 - 많은 양의 물의 혼합물’의 예가 등장한다.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바의 근거들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든다. 즉, 많은 물체들이, 현저하게 보다 작은 덩어리로 있는 경우, 혹은 현저하게 보다 큰 덩어리로 있는 경우에도, 그 물체들은 자신들의 성질을 보존한다. 유향(乳香; libanōtos)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유향은 태워질 때, 넓어지면서도 매우 큰 범위에서 자기 자신의 성질을 지킨다.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는 어떤 크기(megethos)에로 나아갈 수 없는 많은 물체들이 다른 것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런 크기로 나아간다. 분명 금은 어떤 약들과 섞여서 매우 큰 범위로 희박하게 되고 넓어질 수 있다. 그 스스로는 두드러질 때 다다를 수 없었던 그만큼의 크기로 말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놀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즉 어떤 물체들은 또한, 다른 물체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완전히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고유한 성질들과 더불어 그 자신을 보존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서로 같은 크기로 퍼져있다(상호침투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물체들은 덩어리가 작아 자기 스스로는 그와 같은 크기로 퍼질 수도, 자신의 고유한 성질들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말이다. 실로 포도주 한 잔은 많은 물과 혼합되어서 그 물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와 같은 크기의 외연을 얻게 된다.<sup>14)</sup>

알렉산드로스에 따르면, ‘완전 혼합’만이 진정한 의미의 혼합, 혹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혼합이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은 ‘혼합(krasis)’, 즉 ‘혼합된 물체의 각 부분들이 혼합된 물체 전체의 성격을 공유하는 방식의 혼합’이 있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든다. 첫째, 많은 물체들이 자신의 크기가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성질을 보존한다. 가령, 숯불로 태워진 유향이 넓어지면서도 자신의 성질을 보존하는 경우. 둘째, 많은 물체들이 다른 물체의 도움을 받아 그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크기로 확장된다. 가령, 금이 약품의 도움으로 극도의 큰 넓이로 늘어나는 경우. 물론 이 경우에도 그렇게 확장된 물체는 자신의 성질을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물체들은 다른 물체들의 도움을 받아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14) Alexander, *On Mixture*, 217.13-217.32 (= SVF II.473, part = HP 48C, 31-46)

고유한 성질들을 보존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서로 같은 크기로 퍼져 있다(상호침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한 잔의 포도주-많은 양의 물의 혼합물’의 경우. 이 경우, 소량의 포도주는 거대한 크기의 물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와 같은 크기의 외연을 얻게 된다. 그리고 물론 이때 포도주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계속되는 알렉산드로스의 전언을 보자.

사정이 이와 같다는 분명한 증거로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사용한다. 즉 개별적인 존재(hypostasis)를 가진 영혼은, 마치 그 영혼을 받아들이고 있는 물체가 그러하듯이, 그 물체와의 섞임 속에서도 자신의 고유한 실체를 보존하면서 물체 전체에 완전히 퍼져 있다. 왜냐하면 영혼의 어떠한 부분도 그 영혼을 가진 물체와 함께 나누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식물들의 자연(physis)도 마찬가지며, 뿐만 아니라 헥시스(hexis)에 의해 유지되는 것들<sup>15)</sup> 속에 있는 헥시스도 마찬가지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불도 전체적으로 철 전체에 두루 퍼져 있다고 말한다. 그것들 각각이 그 자신의 고유한 실체를 보존하면서 말이다.<sup>16)</sup>

그리고 계속해서 ‘완전 혼합’(이 있음)을 지지하는 이들은, 다른 물체 속에 들어가(혹은 혼합되어, 혹은 스며들어) 극도의 큰 넓이로 확장된 물체가 여전히 자신의 성질을 보존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한다. 첫째, 영혼은 몸과의 섞임 속에서 그 몸 전체에 퍼져있으나, 자신의 고유한 실체를 여전히 보존하고 있다. 영혼의 어떠한 부분도 그 영혼을 가진 물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은 영혼이 몸 전체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식물 전체에 퍼져 있는 자연(자람; physis)과 돌이나 쇠 같은 무기물에 퍼져 있는 헥시스(hexis)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둘째, (빨강게 달구어진) 철의 경우 불이 전체적으로 철 전체에 두루 퍼져 있다. 그리고 이때 철과 불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실체를 보존하고 있다.

바닷물-포도주의 혼합의 경우 외에 완전히 서로에게 스며들어 있으나

15) 돌이나 쇠 같은 무기물을 말한다.

16) Alexander, *On Mixture*, 217.32-218.6 (= SVF II.473, part = HP 48C, 46-56)

두 구성 물체가 자신의 고유한 실체와 성질을 보존하고 있는 완전 혼합의 예로 들어진 것은 위 인용에서 크게 네 가지이다. 그것은 1. 공기 전체에 퍼지는 태워진 유황, 2. 약품에 섞여 극도로 묽어진 상태로 있는 금, 3. 몸에 퍼져있는 영혼, 4. 철 전체에 두루 퍼져 있는 불 등이다. 이러한 예들은 가리키는 사태는 비교적 명료하게 보이는 한 사태에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큰 덩어리의 물체와 극미량의 물체의 혼합 관계이다.

#### IV.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 논의에 대한 스토아의 변형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 혼합의 예로서 드는 ‘포도주 한 잔과 많은 양의 물의 혼합’의 예는 플라투르코스의 다음의 단편에서도 확장되어 표현되어 있다.

『자연학』1권에서 크뤼시포스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받아들인다. : ‘포도주 한 방울이 바다와 혼합되어 있다(kerasai)고 말하는 것을 그 무엇도 막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에 놀라지 않도록, 그는 그 포도주 한 방울이 ‘혼합에 의해(tēi krasei)’ 세계 전체에 퍼져있다(뺏어있다;diatenein)고 말한다.<sup>17)</sup>

‘혼합(krasis)에 의해’ 포도주 한 방울은 바다 전체에 퍼져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 전체에도 퍼져 있다. 이 다소 과장된 듯 한 비유는 한편으로는 프네우마-질료와의 관계를 연상케 하지만, 사실 이 비유는 직접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성소멸론』1권 10장의 혼합 논의를 연상케 한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론의 구절과 관련하여 크뤼시포스의 다소 과장된 듯 한 이 표현이 어떤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성소멸론』327a 30ff.에서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구분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물체의 ‘혼합(mixis)’<sup>18)</sup>을 설명한다. 이

17) Plutarch, *On Common Conceptions*, 1078E (= SVF 2.480 = HP 48B)

18)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일상 용법의 의미상, ‘mixis’와 ‘krasis’는 그 용례의 적용이 주로 고체와 액체로 갈린다는 점 외에는 별 차이가 없다. 스토아 문맥에서는 ‘mixis’와



논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에서 먼저 ‘병치(synthesis)’를 거부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두 물체들이 혼합된다는 것은 그 물체들이 각각 아무 질적 변화를 겪지 않은 채 단순히 서로의 곁에 나란히 놓여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치는 혼합으로 여겨질 수 없다. 그는 또한 구성 요소의 단순한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도 혼합에서 배제한다. 구성 요소 중 하나, 혹은 두 개가 파괴된다면 그 구성물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더 이상 존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의미 있게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해 계속해서 말할 수가 없으므로 혼합에서 배제된다.<sup>19)</sup>

아리스토텔레스가 병치의 사태를 진정한 의미에서 혼합(mixis)이라고 여길 수 없다고 말한 점은 그대로 크뤼시포스도 따르고 있는 내용이다. 크뤼시포스 역시 병치를 완전 혼합(krasis)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정한 혼합이라고 여길 수 없다고 한 두 번째 경우, 즉 구성 요소 중 하나, 혹은 둘 다의 파괴가 일어난 경우를 진정한 혼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논의와 관련해서, 그는 ‘한 방울의 포도주—대단히 많은 양의 물’의 사례를 통해 이 사태를 설명한다. 즉 포도주 한 방울이 많은 양의 물에 풀어질 때 이 한 방울의 포도주는 자신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물 전체의 부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sup>20)</sup> 한 방울의 포도주는 자신의 형태(고유한 특성: eidos)를 상실하고 보다 많은 양의 물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정한 혼합의 경우로 거부한 이 두 번째 경우는 혼합물의 두 구성 요소의 어떤 형태 혹은 고유한 특성의 파괴를 근

---

‘krasis’를 구분하기 위해, 나는 전자를 ‘섞임’, 후자를 ‘혼합’이라 칭했지만, 여기 『생성소멸론』에서의 ‘혼합 논의’에서 나타나는 ‘mixis’는 특별히 ‘krasis’와 구별된 의미로 쓰이지 않으므로, ‘mixis’를 일상적 의미에서의 ‘혼합’이라 칭하겠다.

19) Aristotle, *On Generation and Corruption*, 327a 23-33.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혼합 물체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것들은, 그것들이 그 혼합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말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말이다. 그리고 혼합물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그 혼합물 안에 있는 내용물들로서 파괴되지 않았다고 말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고 말한다.

20) 같은 곳, 328a23-8

거로 한다는 점에서 스토아의 두 번째 섞임의 종류인 ‘융해’와 비견되는 사태이다. 아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사태는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정한 사태는 두 구성 요소 모두의 파괴일 필요는 없다. 두 구성 요소 중 하나의 파괴만 이루어져도 이것은 혼합의 경우라 불릴 수 없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례로 들고 있는 ‘한 방울의 포도주-대단히 많은 양의 물’의 경우, 성질의 파괴가 일어나는 쪽은 극도로 양이 기우는 포도주 쪽이다.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그렇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의 혼합 논의에서 전달되는 크뤼시포스의 ‘융해’는 구성 요소 양쪽이 모두 그것의 성질을 ‘함께’ 상실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양자가 그리는 사태는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구성 요소 둘 다이든, 한 쪽만이든, 그 구성 요소의 고유한 특성의 상실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용한 이 ‘한 방울의 포도주-대단히 많은 양의 물’의 쌍의 사태를 ‘한 방울의 포도주-바닷물’의 형태로 받아들이면서 크뤼시포스는 대단히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이 사례가 적은 양의 물체가 대단히 많은 양의 물 쪽으로 흡수되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는 사태의 사례로 사용되지만, 크뤼시포스는 바로 이 똑같은 사례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여 완전히 다른 사태에 적용하고 있다. 즉 크뤼시포스에게서는 극도로 작은 양의 포도주도 바닷물과 ‘혼합되며(kerasai)’, 심지어 세계 전체와도 혼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혼합(krasis)에 의해, 한 방울의 포도주는 자신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은 채 바닷물 전체에, 혹은 세계 전체에 퍼져있다.<sup>21)</sup> 그리고 이 포도주 한 방울이 자신의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기름에 적신 스펀지에 의해 양자가 분리 추출된다는 실험에 의해서도 확인된다.<sup>22)</sup> 크뤼시포스는 ‘한 방울의 포도주-대량의 바닷물’ 쌍의 사례를 두 번째 ‘융해’의 사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혼합’의 전형적인 예처럼 쓰고 있는 것이다. 포도주와 물의 혼합 상태를 크뤼시포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중 어느 쪽이 더 과학적으로

21) Plutarch, *On Common Conceptions*, 1078E (= SVF 2.480 = HP 48B)

22) Stobaeus, 1.155,5-11 (= SVF 2.471)

맞게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크뤼시포스의 이 사례 적용의 이러한 변형은 그가 이 변형을 통해 보여주고자 의도한 혼합의 사태가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sup>23)</sup>

## V. 결론 - 혼합 논의에서 스토아가 의도한 것

앞서의 단편들에서 크뤼시포스에 의해 제시된 가정과 주장, 그리고 그 사례들이 적절한가의 여부는 모두 논쟁적이다.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적절성, 혹은 타당성 여부를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이것들의 성공 여부는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대신 본 논고는 스토아 혼합 논의가 전개되는 방식, 그것이 논의되는 맥락, 연관 논의인 아리스토텔레스 혼합 논의와의 비교 등을 통해 스토아가 혼합 논의를 통해 의도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다. 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점은 스토아의 혼합 이론이 스토아의 전체 자연학 구조에서, 특히 일원론과 유물론의 양립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이다. 왜 그들은 혼합 논의를 끌어들이는가?

스토아가 혼합 논의를 통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혼합 혹은 섞임의 종류들 중에서 진정한 혼합이 무엇이나를 밝히려는 것에 있지 않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혼합론에서 스토아의 관심의 중심은 보다 존재론-자연학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유물론과 관련이 있다. 스토아 자연학에서 우주 전체, 혹은 우주 안의 어떤 한 존재는 모두 ‘작용을 가하는 것(즉, 능동 근원; to poioun)’과 ‘작용을 받는 것(즉, 수동 근원; to paschon)’으로 이루어져 있다.<sup>24)</sup> 스토아에 따르면, 오직 물체만이 작용을 가하고 작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주의 두 근원인 능동 근원과 수동 근원은 물체이다.<sup>25)</sup> 그리고 능동 근원과 수동 근원은 (여러

23)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 논의의 대 전제 중의 하나는 두 가지 물체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크뤼시포스는 이 전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이 전제를 깨뜨리는 것이 스토아 혼합론의 의도일 것이다.

24) Diogenes Laertius 7.134 (= HP 44B)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각각 프네우마와 질료이다.<sup>26)</sup> 스토아는 이 물체적인 두 근원의 상관관계를 물체적 능동 근원인 프네우마가 물체적 수동 근원인 질료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다고 표현한다.<sup>27)</sup>

이때 프네우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그것이 스며들어 있는 물체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필자는 스토아 혼합론의 전모를 비교적 자세히 묘사한 알렉산드로스의 서술의 첫 부분에 이미 이 혼합론의 배경이 되는 문제가 언급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거기서 프네우마는 세계 전체에 스며들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 흩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유지한다. 우주와 우주안의 모든 사물들은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프네우마 덕분에 흩어지지 않고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세계의 모든 물체적 존재는 항상 프네우마와 결합된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스토아에게 프네우마 역시 분명 물체적 존재이다. 그것은 ‘작용을 가하는 것(to poioun)’이며, 그리고 오직 물체만이 작용을 가하거나 작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체인 프네우마는 항상 다른 물체인 질료에 스며들어, 혹은 혼합되어 있는데, 이 사태는 분명 병치적 섞임 상태와는 구별되는 사태이다. 병치적 섞임 상태를 일으키는, 원자와 같이 각각 구별되는 물질들의, 기계적인 혼합은 두 가지 물체가 어떻게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는가와 같은 물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러나 병치와 구별되는, 그 구성 요소가 원자와 같은 것이 아닌, 어떤 물체적인 존재들의 ‘완전 혼합’은, 그 ‘완전함’, ‘완전한 상호 침투’에 의해 구성 요소들을 하나의 실체가 되게 해주며, 그것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는 물체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준다.<sup>28)</sup>

25) Sextus Empiricus, *Against The Professors*, 8.263 (= SVF 2.363 = HP 45B)

26) Aetius, 1.7.33 (= SVF 2.1027 = HP 46A)

27) 같은 곳.

28) 물론 여기서, 이 완전 혼합을 가능하게 하는, 즉 동시에 같은 장소를 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물체가 어떤 성격의 물체인가와 같은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본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간단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 알렉산드로스의 단편에서 완전 혼합의 예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는 불과 철의 혼합 관계이다. 스토아에 따르면, 빨갛게 달구어져 뜨거운 철은 그것이 불이라는 물체와 철이라는 물체가 혼합되어 있는 사태이다. 여기서 철의 뜨거움이라는 성질을 불이라는 물체로 지칭한다 했을 때(스토아에게 있어 성질은 물체이다), 이 때 성질 불을 가리키는 물체와 질료 철을 가리키는 물체가 같은 성격의 물체인지 여부가 먼저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질료에 프네우마

그것은 더 나아가 이 세계는 하나의 단일한 물체적 실체라는 스토아 일원론과 이 우주의 모든 사물은 두 개의 물체적 근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스토아적 유물론<sup>29)</sup>을 양립가능하게 해준다. 이 우주와 이 우주 안의 모든 사물은 두 개의 물체적 근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두 물체적 근원이 함께 있는 방식이 ‘완전 혼합’이기 때문에 이 완전 혼합을 통해 이루어진 실체는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단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때 이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인 두 물체적 근원은 여전히 자신의 성질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다. 이것이 물체적 능동 근원인 프네우마가 물체적 수동 근원인 질료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방식인 것이다. 크뤼시포스는 혼합 논의를 통해, ‘완전 혼합’을 ‘병치’와 분명하게 구별시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 논의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두 개의 물체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는 ‘완전 혼합’ 방식을 제시하여 스토아적 유물론과 일원론의 양립이 가능함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sup>30)</sup>

투 고 일: 2013. 07. 16.

심사완료일: 2013. 08. 04.

게재확정일: 2013. 08. 05.

한경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박사수료

가 스며들어 있고, 질료와 프네우마 양자가 모두 물체라 할 때, 질료에 스며들어 있는 프네우마가 질료와 같은 방식, 혹은 같은 의미의 물체인지 역시 해명되어야 한다. 스토아는 능동 근원으로 지칭하는 프네우마, 신, 불 등을 모두 물체적인 것으로 둔다. 이들의 물체성을 해명하는 것 역시 스토아 자연학의 주요 논제이다.

- 29) 원자론적 유물론과 차별된다는 의미에서 스토아적 유물론이라 지칭할 수 있겠지만, 사실 스토아의 유물론을 ‘유물론’이라 할 때, 이 ‘유물론’이라는 용어가 스토아의 그것을 설명하기에 적절한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근의 영어권 연구자들은 스토아의 이러한 물체주의를 ‘materialism’이 아닌 ‘corporealism’이라 칭한다.
- 30) 본 논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스토아 혼합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함의는 스토아의 ‘완전 혼합론’이 그들이 무한 가분성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스토아가 말하는 세계는 에피쿠로스의 세계와 달리 원자들의 세계가 아니라 무한히 가분되는 연속체의 세계이다. 에피쿠로스의 세계에서는 최소 크기의 미니마를 상정하기 때문에 모든 혼합은 기본적으로 병치적 혼합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스토아의 두 가지 물체의 완전 혼합 사태가 가능한 것은 두 가지 물체가 원자의 병렬적 혼합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물체가 완전히 섞여서 하나가 되는, 그러면서도 그 두 물체가 여전히 자신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사태는 원자의 병렬적 혼합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 BIBLIOGRAPHY

- Brunschwig, J. (2003), 'Stoic Metaphysics', in Inwood (2003), 206-232.
- Brunschwig, J. and Sedley, D. (2003), 'Hellenistic Philosophy', in Sedley. (2003), 151-82.
- Currie, B. S. (1971), *God and Matter in Early Stoic Physics*.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dissertation (Ann Arbor: UMI)
- Gould, J. B. (1970), *The Philosophy of Chrysippu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09-112.
- Hager, F. P. (1982), 'Chrysippus' Theory of Pneuma', *Prudentia*, 14, 97-108.
- Hahn, D. E. (1977), *The Origins of Stoic Cosmology* (Columbus: Ohio State UP).
- Inwood, B. and Gerson, L. (1988), *Hellenistic Philosophy: Introductory Readings* (Indianapolis: Hackett).
- Lapidge, M. (1973), 'Ἀχαί and Στοιχεῖα: A Problem in Stoic Cosmology', *Phronesis*, 18 (3), 240-78.
- \_\_\_\_\_. (1978a), 'Stoic Cosmology', in Rist (1978), 161-85.
- Long, A. A.(1974/1986), *Hellenistic Philosophy; Stoics, Epicureans, Sceptics* (1974, London: Duckworth; repr. in 1986)
- Long, A. A. and Sedley, D. N. (1987), *The Hellenistic Philosophers*, 2 vols. (Cambridge: Cambridge UP).
- Mansfeld, J. (1983), 'Zeno and Aristotle on Mixture', *Mnemosyne*, 36 (3/4), 306-10.
- Salles, R. (ed.) (2009), *God and Cosmos in Stoicism* (Oxford: Oxford UP).
- Sambursky, S. (1959), *Physics of the Stoic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Sedley, D. (1999), 'Hellenistic Physics and Metaphysics', in Algra et al. (1999), 355-411.
- Sellars, J. (2006), *Stoic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orabji, R. (1988), *Matter, Space and Motion : Theories in Antiquity and Their Sequel* (Ithaca: Cornell UP).
- Todd, R. B. (1976), *Alexander of Aphrodisias on Stoic Physics : A Study of the De Mixtione with Preliminary Essays, 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Leiden: Brill)
- \_\_\_\_\_. (1978), 'Monism and Immanence: Foundations of Stoic Physics', in Rist (1978), 137-60.
- White, M. J. (2003), 'Stoic Natural Philosophy (Physics and Cosmology)', in Inwood (2003), 124-152.

## ABSTRACT

## The Stoics on Mixture

Han, Kyeong-Ja

The critical discussions on the Stoics' theory of mixture have been focused on inquiring how two bodies can occupy the same place. Chrysippus categorized mixture in three ways – juxtaposition, confusion, and blending – and showed that 'blending' among these three is the way in which two bodies can exist at the same place. This article seeks, firstly, to show how the Stoics distinguish 'blending' from the other two ways of mixture by analyzing Alexander's citing (SVF 2.473) and secondly, to shed light on what the Stoics intrinsically aim through this theory of 'through-and-through blending'. The features, such as Stobaeus, Diogenes Laertius, and Plutarch, which reveal the Stoics' perspective in addition to that of Alexander, show that the category of 'blending' was introduced to explain the manner in which *pneuma* (breath) penetrates *hylē* (matter), providing them with cohesive force, and generating properties in them. The theory of 'blending' also serves to support the idea that the whole universe is unified by *pneuma* which pervades it all, and by which the universe is sustained and stabilized and made interactive with itself. This Stoics' theory of mixture is established in explicit opposition to that of Aristotle. This theory furthermore provides the compatibility between Stoic monism, in which this universe is a single corporeal entity, and Stoic corporealism, in which everything in the universe are composed of two corporeal



principles. This is because although the universe and everything in the universe are composed of two corporeal principles, the way in which these two corporeal principles are present together is ‘through-and-through blending’; therefore the entity which is composed by this ‘blending’ is one single entity, not two.

**Keywords:** mixture, blending, through-and-through blending, juxtaposition, confusion, *pneuma*, Chrysippus, principle

